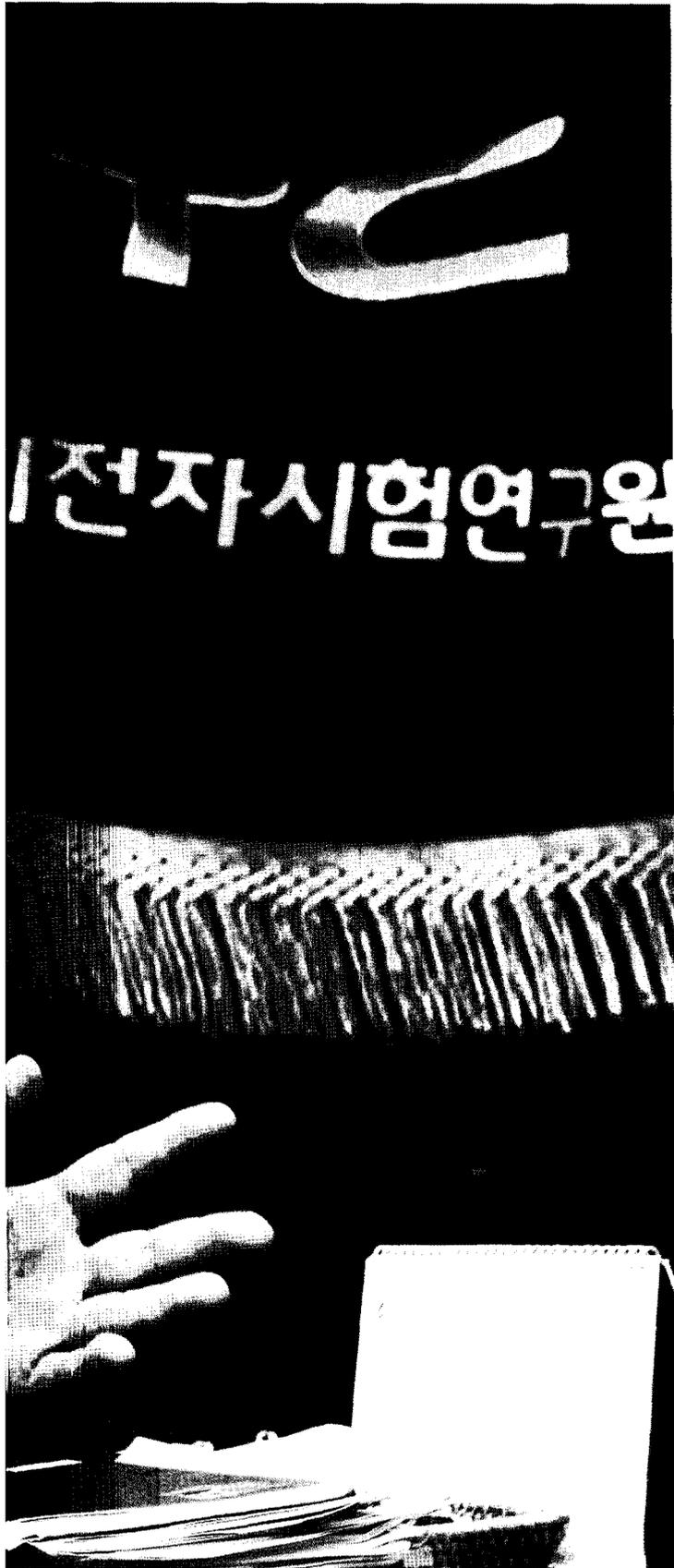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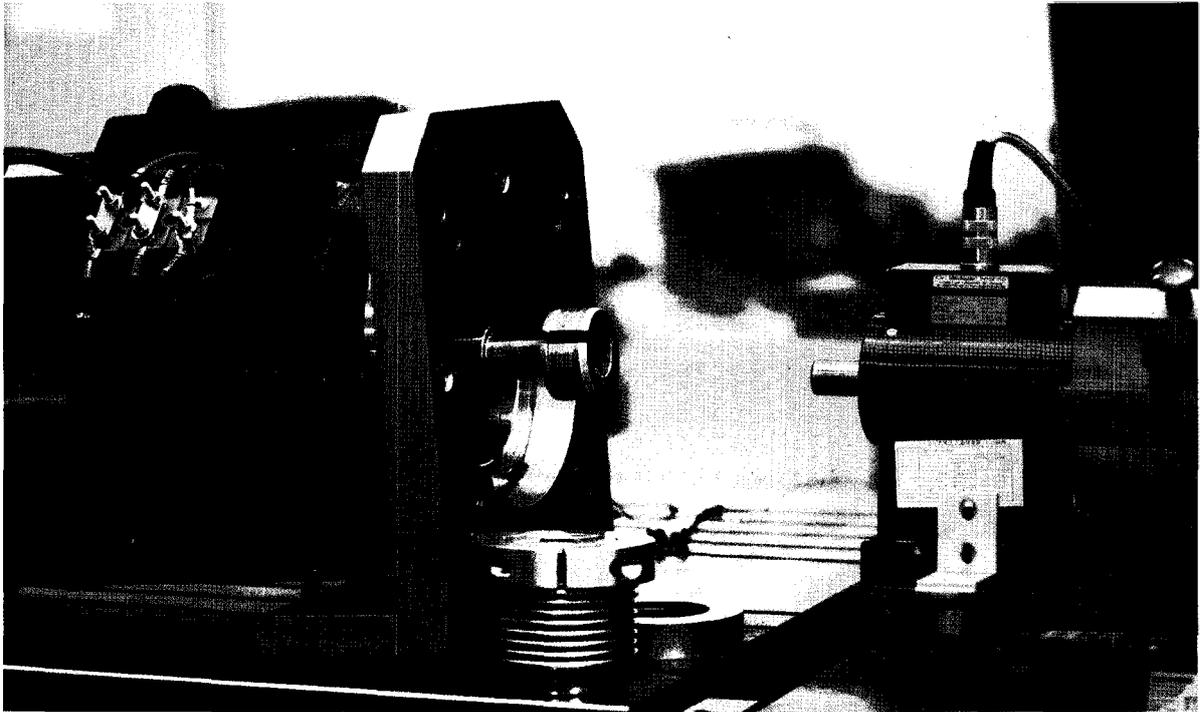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히찬 도약

심윤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새로운 영역 도전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지난해 7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통합되어 출범한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세대 주성장 동력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최근에는 신기술 제품 인증정보 보급과 국제인증 네트워크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친환경 녹색기술 분야와 스마트 그리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 새로운 사업영역에도 적극 도전하고 있다. <편집자>

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지난해 7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통합되어 출범한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식음화학, 부품산업은 물론 융·복합 산업, 녹색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세대 주성장 동력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술 제품인증 정보 보급과 국제인증 네트워크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친환경 녹색기술 분야와 스마트 그리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 새로운 사업영역에도 적극 도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충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4개국 18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로부터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지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일본 전자파인증위원회(VCCI), 스웨덴



▲ 전동기 모터를 시험하는 장면

TCO, 노르웨이 NEMKO의 RoHS 등의 해외 유명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기업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외인증을 취득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해 7월 통합 출범한 심윤수 KTC 원장과의 지상 인터뷰를 통해 표준, 인증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KTC의 원대한 비전을 들어본다.

Q 통합, 출범한 KTC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크게 봐서 선진인증기관으로 도약하는 것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KTC를 글로벌 전문시험인증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해 첨단화된 설비, 전문인력, 축적된 시험인증 전문역량 인프라를 활용해 신기술과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시험인증을 체계화, 국제화해 선진 각국의 기술규제장벽(TBT)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술규제장벽으로 인해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규격정보 제공, 기술지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 인증시스템을 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각종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인증마크로 보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에 KTC는 불량제품 혹은 인증이 없는 제품의 시장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한층 제고함은 물론 품질인증마크에 대한 홍보도 적극 전개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인증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정착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국제규격 제정과 국제표준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지속적인 MOU 체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도수 처리 시험검사와 LED 조명기구의 신뢰성 평가

와 R&D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험기준과 인증, 메가트 로닉스 인증, NFC 인증 등과 같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시험, 인증 분야를 적극 개척할 예정입니다.

Q 국내·외 표준화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KTC는 44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중에서 최 다 ISO, IEC 대응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표준원에서는 2만2,600여 중 KS표준 중 1만 3,293종의 표준을 민간표준개발협력기관에 이관했는데, KTC는 그 중 10%에 가까운 표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10년 우수 COSD로 평가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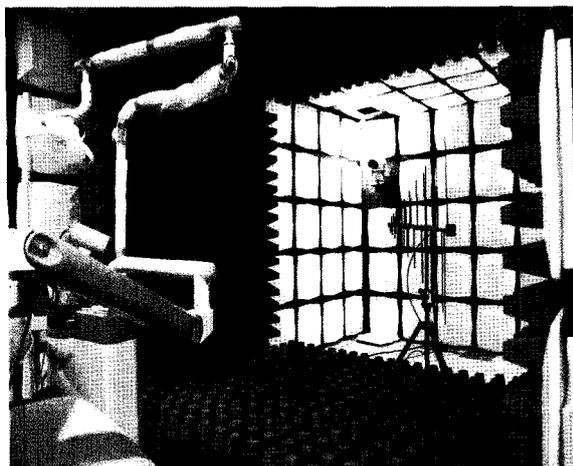
KTC는 가정용 전자기기, 오디오·비디오·정보와 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분야와 산업용 송풍기, 펌프와 기계요소를 중심으로 한 기반기술을 산업 현장에 접목시키고 생산제품의 품질과 안전한 국민소비를 보충하기 위한 기계 분야 표준화활동에서 1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기술표준원으로부터 IEC/TC13(전기에너지 측정과 부하 제어용 장비)에 대해 COSD로 지정받아 스마트 미터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표준개발 활동을 시작했고 국제법정세량기구(OIML)에서 발행된 표준과

KS와의 부합화 추진을 위한 법정계량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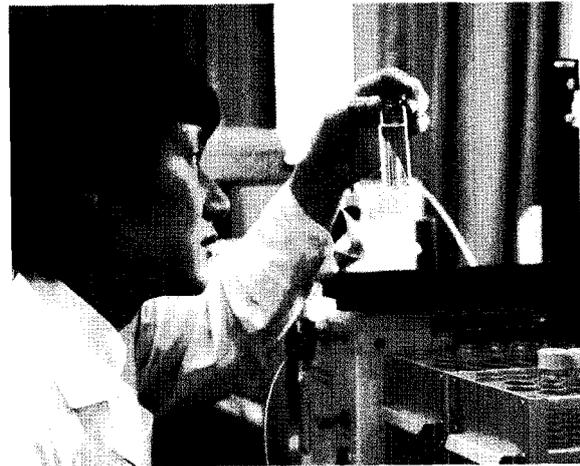
그동안 KS의 제정과 개정활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표준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시험인증기관으로서 KTC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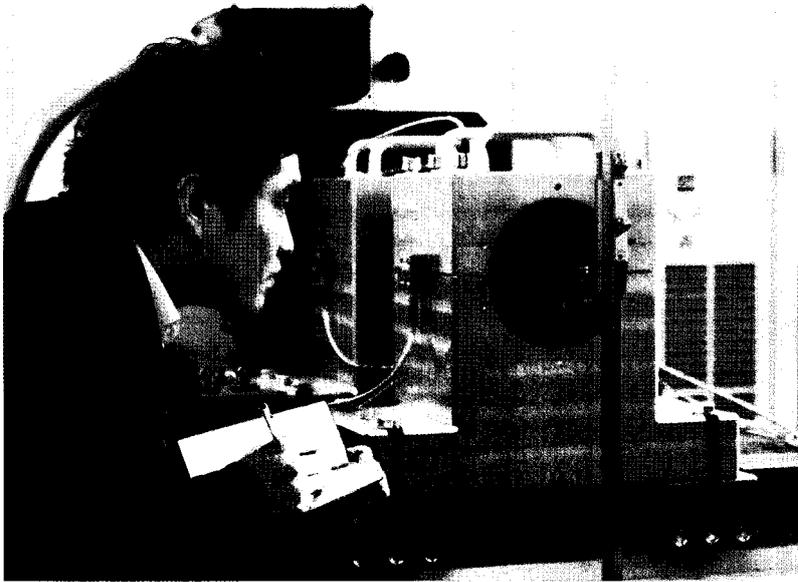
A KTC는 기존 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합쳐진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에서 차별화된 업무경험과 전문지식, 전문측정기술을 40년 이상 축적한 것이 무엇보다 큰 경쟁력입니다. 일례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주력 시험인증 품목인 가정용 전기용품의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로부터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세계 20위권의 시험인증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도 공조시험실비는 아시아 최고의 시험인증 실비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내에선 유일하게 미국의 공조시설 시험인증기관 AMCA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두 기관의 시험인증 업무 중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국제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이중 간 업무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전략, 조직효율화,



▲ 전자파장에서 시험실비.



▲ 화학산업팀의 실험 광경.



▲ 전동기 시험 장면

업무구조 개혁 등을 통해 보다 차별화, 고급화된 종합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Q KTC에 부임하기까지 원장님의 이력이 궁금합니다.

A 1984년부터 2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1989년부터 상공부 국회 담당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이 만나는 현장에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면서 자원파트인 유전개발, 석유수급, 석유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석유수급과장 시절 송유관공사 분당저유소 건설분제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의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일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중 대사관 3년은 사실상 마지막 공직생활이었으면서 저에게 많은 의미를 남긴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하얼빈공대에 특강을 나간 것을 계기로 객좌교수로 임명된 것을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후에 근무한 철강협회에서는 '환경', '농상', '공정거래 문제' 등 정부의 이상과 민간기업의 현실적 간격을 좁히기 위한 중재자적 역할

을 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듯 공직생활에서 얻은 자신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표준 협력기관과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KTC는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해 첨단화된 설비, 전문 인력, 축적된 시험인증 전문역량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규제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설비의 현대화, 인력의 전문 자질 향상 등으로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와 국제기준 시험능력 배양, 해외 다국적 시험인증기관과의 MOU체결 확대 등으로 글로벌 인증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증 마크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 소비자 보호적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편 KTC는 KS를 제정·개정하는 국가표준개발협력기관 활동과 국제표준화 간사기관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AMCA와 UL의 민간표준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8종의 국내 개발 신탁금을 ASTM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 CSA, 스웨덴 SEMKO 등과 KTC 발행 시험성적서 인정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30개국 40여 기관으로 시험성적서 인정 MOU를 확대 체결해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등 표준개발을 겸비한 세계 10위 권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